

<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삼성 · 현대의 오월동주

현대와 삼성은 국내 경제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선두 재벌들이다. 1~2위를 다투다보니 경영실적을 놓고 피터지게 경쟁하는 것은 물론이요 삼성은 현대가, 현대는 삼성이 신규사업에 참여할 태세를 갖추면 상호 견제와 비방을 서슴치 않으면서 치열한 로비전을 통해 상대의 의도를 좌절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기아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삼성이 기아그룹을 비롯 쌍용자동차를 욕심낸다는 것은 상용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으며, 승용차사업을 욕심내고 부산공장 건설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기정사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가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입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지 않은 것은 반대명분이 약하기도 했으나, 상용차사업 하나만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고, 승용차사업을 독자적으로 완성할 때쯤이면 현대는 이미 국제적인 대메이커로 성장해 삼성을 견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현대의 국제화가 본래도에 오르지 못한 시점에서 삼성이 기아 및 쌍용을 인수함으로써 일시에 자동차사업 경쟁력을 갖추려하자 적극적인 반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YS-HC로 이어지는 삼성라인에 맞서 경쟁자를 한편으로 한 현대-대우-기아의 자동차라인을 구축해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 것이다.

석유화학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삼성과 현대는 89년 충남 대산단지에서 거의 동시에 나프타 크래커 건설을 시작, 지금까지 신증설 경쟁을 벌여오고 있다. NCC를 비롯 합성수지, EO/G, SM 등 사업주류가 대동소이하고 신증설에 있어서도 경쟁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삼성·현대의 라이벌 의식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NCC 건설공사에 들어가면서 각종 마찰을 빚었고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용수, 부두는 물론 전력인입선 건설공사까지도 공동사업의 비용효율성을 제쳐두고 별도로 시행, 막대한 건설비용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막바지에는 건설인력 유치경쟁까지 벌여 용접공 일당을 30만~50만원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우리나라 건설경쟁력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데 일조했다. 플랜트 가동 이후에도 국내판매 및 수출을 둘러싸고 불편한 사이가 지속됐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현대·삼성이 전략적 제휴를 맺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은 97년봄 각각 35억원을 투자, 양사의 공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1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원료를 상호 교환기로 합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산항만을 조기에 건설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최근 개최된 석유화학 민간협의회에서 유현식 삼성종합화학 사장은 대산항만이 건설되면 합성수지 중국수출시 부산·인천·군산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물류비용은 1/5, 수출시간은 1/10 감축 또는 단축될 수 있다고 주장, 대산항만을 조기에 건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몽혁 현대석유화학 사장도 정부의 대산항만 조기건설에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97년초 대표이사에 취임한 유현식·정몽혁 사장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혈경쟁을 지양하기로 합의한 이후 두번째 작품인 것이다. 현대와 삼성은 97년3월 PCS(개인휴대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연합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삼성·현대의 대산 석유화학사업은 정부나 국민일반의 동의를 받은바 없고, 사업시행 초기 정부의 지원없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장담한 바 있으며, 국내 최대재벌인 삼성·현대만을 위해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특혜의혹을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결론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료 관세율을 인하 또는 무세화하고,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항만을 건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이론이 있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만,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일정한 방향성이 없고, 재벌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욕으로 인해 비효율

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낭비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현대와 삼성의 전략적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천민자본주의는 더이상 수용해줄 가치가 없는 것이다.

<화학저널 1997/9/1>